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존재론, 인식론 논쟁과 성찰적 이론의 발전 가능성*

전재성 | 서울대학교

현재 국제정치학 이론계는 메타이론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수립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존재론과 인식론의 우선성을 두고 진행되는 논쟁은 국제정치학 이론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구성주의자 웬트는 과학적 실재론을 받아들여 인식론보다 존재론을 앞세워 이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식론 우선론의 입장을 취할 경우 사회적 대상의 존재성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경험론자들과 탈근대이론가들은 인식론 우선론의 입장에서 대상의 존재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철학에서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쟁, 경험론과 합리론 논쟁,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재론과 명목론 논쟁으로 이어지며, 현대에는 지시이론의 형태로 재론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도 국제정치 대상의 존재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 국제정치 체제, 국제정치구조 등 많은 개념들이 관측불가능한 추상적 개념으로 이들이 실행하는가, 혹은 인식자의 인식행위에 따라 존재성이 결정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엄존하는 국제정치구조가 존재한다면 이론화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실천의 제약이 현실적이 되는 반면, 국제정치구조 등이 인식자의 인식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론화의 상호주관성이 주된 정초가 되며, 담론적 행동이 실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본 논문은 이 논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립점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제기하고 이론화의 길을 모색하기를 주장한다.

이는 결국 성찰적 이론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연결된다. 성찰적 이론은 기존의 합리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그 자체로 경험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은 성찰적이면서 경험적인 이론의 가능성을 현상학과 해석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경험적 이론의 주요 명제들을 제시해 본다.

주제어: 국제정치학이론, 존재론, 인식론, 성찰성, 구성주의, 과학적 실재론, 실증주의, 경험론, 탈근대이론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665);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 서론

현재 국제정치학 이론계는 탈실증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실증주의에 기반한 인식론과 존재론, 가치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회를 시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언어적 전회, 역사적 전회, 사회학적 전회, 탈서구적 전회, 성찰적 전회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이론의 기초가 되는 메타이론의 범주로 존재론과 인식론 중 어떤 것을 우선적 범주로 삼아야 하는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대립구도로 구성주의자 웬트(Alexander Wendt)는 과학적 실재론을 받아들여 인식론보다 존재론을 앞세워 국제정치를 이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식론 우선성의 입장을 취할 경우 사회적 대상의 존재성을 두고 논쟁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정치 대상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경험론자들과 탈근대이론가들은 인식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상의 객관적 존재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본다. 대상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대상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인식 주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에서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쟁, 경험론과 합리론 논쟁,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재론과 명목론 논쟁으로 이어지며, 현대에는 지시이론의 형태로 재론되고 있다(이명현 2003; 채오병 2007; 노양진 2000).

국제정치학에서도 국제정치 대상의 존재성과 속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 국제정치체제, 국제정치구조 등 많은 개념들이 관측불가능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이 실재하는 대상인가, 혹은 인식자의 인식행위에 따라 존재성이 결정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객관적으로 국제정치구조가 존재한다면 이론화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실천이 많은 제약에 부딪히는 반면, 국제정치구조 등이 인식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론화의 상호주관성이 주된 정초가 되며, 담론적 행동이 실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 이 논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립점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제기하고 이론화의 길을 모색하기를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국제정치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찰적 이론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연결된다. 국제정치학 이론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합리주의 이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찰적 이론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성찰적 이론은 합리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그 자체로 경험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라는 점이 지적되었다(Hamati-

Ataya 2013). 본 논문은 성찰적이면서 경험적인 이론을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메타이론적 논쟁을 거쳐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본 논문은 현상학과 해석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근거하여 성찰성을 강화하면서 경험적 이론의 주요 명제들을 수립하고 국제정치 이론화에 적용하는 길을 모색해 본다.

II. 과학적 실재론과 경험론, 탈근대론 간의 존재론, 인식론 논쟁

1. 물리적 대상과 실증주의, 과학적 실재론, 경험주의, 탈근대이론

국제정치학 이론의 기초가 되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논제가 운위되면서 과학철학의 관점들이 국제정치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다. 과학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인식자와 대상 간 관계이다. 대상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과학적 실재론(scientific realism)자들은 관측가능성과 무관하게 대상이 실재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인간 인식자의 인식행위에 모든 존재의 실재성을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 인간중심적 사고이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사라져도 자연적 대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타당하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죽음 이후에도 세상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 나의 죽음 이후에도 세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유추한다. 더 나아가 모든 인간종이 멸종하더라도 세상은 인간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인식자와 독립된 존재성에 대한 실재론의 가정이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가 존재한다고 확신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존재하는 실재의 효과를 인식자가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더라도 실재 자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발생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과학적 실재론자의 논의를 볼 때, 인간의 인식 능력이 극미, 혹은 거대 차원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의 실재성을 회의할 수 없다는 논의는 수궁할만 하다. 특히 물리적 대상은 인간의 삶의 차원과 매우 동떨어진 차원들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인식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의 도움을 빌거나, 혹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벗어난 실재가 파생하는 효과를 인식함으로써 대상의 존재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

다고 본다. 역추적의 방식은 추론(abduction 혹은 retroduction)의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들 중 최상로의 추리(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가 실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본다(Wendt 1999, 62). 관측 불가능한 대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론이 경쟁 가능하며 이들 중 가장 우수한 이론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른 대체 이론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최고의 이론으로 인정받는다(박승배 2008).¹⁾

반면 경험론자들은 인간의 인식 경험에서 벗어난 대상의 존재성과 속성을 가정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경험하며 단순관념에서 시작하여 복합관념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반영하는 표상들을 가지게 된다. 표상들의 조합으로 현실 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인식이 된다. 인간의 경험 과정과 표상 작용을 초월하여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흄(David Hume)과 버클리(George Berkely) 등 경험론자들은 대상 자체의 존재성과 속성에 대한 인식을 유보하고 회의주의를 표방한다. 회의주의는 인식비관주의와는 다른 것이며, 반실재론이라고 명명하기도 조심스럽다. 회의주의는 물 자체의 존재성과 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들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릴 수 있을 만큼 인간의 표상작용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Fogelin 1985). 인간의 인식행동은 규약주의(conventionalism)로 결과한다(Livingston 1984). 현재까지의 체험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토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Wright 1983). 특히 흄은 인과론과 관련하여 경험론적 인식 회의주의를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주의로 발전시킨다(Hume 1975; Hume 1978; Popkin 1951).

이러한 논의는 결국 인식론 우선주의인데, 인간의 인식 행위가 대상의 존재를 결정하며, 존재성과 속성은 인식행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실재론자들은 인간으로서 개인 혹은 인간 전체가 사라지더라도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경험론자들은 이 역시 증명되지 않은 관념들 간의 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타인이 죽더라도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인류의 죽음 이후에 세상의 독립적 존재성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이들 모두, 즉, 타인의 죽음, 세상의 존재, 인류의 죽음 등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과학적 실재론의 직관적 가정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1) 박승배(2008)는 최상로의 추리가 무수히 가능한 다른 추리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어렵고, 관측불가능한, 무수한, 그러나 양립불가능한 추리들의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즉, 현재 가장 좋은 이론이 아직 생각해내지 못한 다른 이론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다. 관측 불가능한 대상으로부터 파생된 속성을 인식하여 대상 자체의 속성을 추론하는 행위 역시 인식적 회의론을 벗어나기 어렵다. 대상의 속성과 효과로서 파생된 관찰가능한 속성 간의 필연적 연결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인간 관념들 간의 필연적이 지 않은 연합에 기초하는 한 추론의 필연성도 전제할 수 없다.²⁾

논리경험주의의 선상에 있는 실증주의 역시 경험론의 회의주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실증주의는 과학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명제는 논리명제이거나 경험적 사실을 지칭하는 종합명제 뿐이며, 험펠(Hempel 1942; Hempel 1965)류의 연역법칙적 설명모델(deductive-nomological model)에 기반하고 있다. 경험명제는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거나 혹은 속성을 지시하는 기술명제인데, 이들 역시 대상의 존재성 자체에 관해서는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인식자의 경험을 벗어나 대상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웨트의 지적처럼 실증주의는 대상이 실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식활동을 하지만 대상의 존재성 자체를 묻게 되면 불가지론 혹은 반실재론의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탈근대이론은 대상의 존재를 표상하는 언어의 구조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험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있다. 핵심은 표상과 대상, 기표와 기의의 대응관계로 언어 명제가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내적 문법구조에 따라 표상과 기표의 내용과 형식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소쉬르의 논의처럼 모든 인간의 언어는 공시적 언어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대상의 표현은 문법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인식 내적인 문법구조가 대상에 대한 인식작용을 구성하거나 제약하는 바, 결국 단어와 명제는 다른 단어, 명제와의 차이에 의해 정의되고 전체 의미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논의를 발전시켜 기표의 의미가 공시적 문법구조뿐 아니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후의 의미구조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정된다는 차연의 원리도 덧붙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의미구조는 내적 문법뿐 아닌 당시 언어체계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전체적 인식체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언어 외적 사회 권력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탈근대이론도 경험론의 회의론처럼 인식 대상의 존재성과 속성 자체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2) 경험론에 토대를 둔 인식론 우선론자들은 필연적 인과성을 부정하게 되며 대표적인 철학자는 흄이다. 표상된 관념들 간의 연합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자의 입장에서 대상의 본질과 효과 간의 필연적 연결성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키키(Kurki 2008)의 논의를 참조.

자체를 문제시하여 객관적 진리성이라는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실재에 대한 회의론적 입장에서 반토대주의의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Der Derian and Shapiro 1989; Walker 1993).

이러한 논의는 과학적 실재론을 공박하는 강력한 논리로 자리잡게 되는데, 그렇다면 회의론을 넘어 객관적 과학철학의 기본 명제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우리가 국제정치 현실을 분석할 때 국제정치 실재를 상정하고 국제정치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여기서 과학적 실재론에 자신의 구성주의 토대를 두고 있는 웬트의 대응을 살펴보자. 웬트(1999, 59)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식자들은 대상의 존재성을 가정하고 인식하며, 그 결과 상당한 과학적 지식의 진보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고, 둘째, 과학철학의 진리명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제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숙한,” 진리에 “근접한”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상당히 신중하고 온건한 것으로 이는 웬트의 목적이 과학적 실재론 자체를 옹호하기 보다는 과학적 실재론이 사회의 이론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추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2. 논쟁의 재해석과 새로운 논점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경험론과 탈근대이론의 회의론적 비판이 과연 절대적으로 대립적인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실재의 이론화에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다. 실재론과 회의론 논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새롭게 사고하여 다음 차원의 논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인간의 인식을 관념과 일치시키는 것의 문제이다. 경험론자나 탈근대론자 모두 인간의 인식이 관념에 표상이 형성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본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은 몸에 내재된 감각기관의 소여를 우선으로 시작되며, 이후 처리과정을 거쳐 관념의 인식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재 지평을 인간의 물질적 차원과 관념적 차원,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로 설정할 경우, 대상의 존재성 논의는 상당히 다른 논점들을 포함하게 된다.

대상과 인식을 물질과 관념으로 이분한 것은 데카르트(Rene Descartes) 이래 서구 인식론의 가정인데, 인간의 인식과정은 관념에 의한 인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대상을 인식할 경우, 대상과의 물리적 접촉, 이들 감각자료들을 지각하는 과정, 지각된 자료들이 인식과정으로 취합되어 반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스스로

표상하여 때로는 언어화하고 때로는 이미지화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철학에서 논의하는 바 경험론과 탈근대론의 인식과정은 지각 이후의 관념화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식과정의 순수 관념적 차원에 논의를 집중한다.

이러한 문제는 20세기 다양한 현상학자들과, 이후 인지과학과 현상학 등 다양한 인식론을 취합하여 인식론을 재정립하고자 한 구현주의자들에게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슈츠(Alfred Schutz)의 경우 인간의 인식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차원에서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개념을 빌자면 “삶의 흐름”(stream of life) 혹은 현상학적 개념을 빌자면 “생활세계”(everyday life)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사후적으로 의식에 의해 반성할 때 관념적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 발생하는 관념적 인식은 애초의 몸 전체의 인식과정을 그대로 되살리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 요소는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은 사실상 사후의 관념적 단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관념적 인식 이전의 몸 전체의 지각, 혹은 경험 차원에서 대상의 존재 자체, 그리고 속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선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관념의 인식체계, 이론, 혹은 관심에 의해 지각된 내용이 진행되어 인식의 내용을 이루는 바, 관념 단계의 회의론으로 대상의 실재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오히려 인간의 몸과 감각기관에 근거한 지각이 대상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지각과 관념 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둘째, 과학적 실재론자들은 관측불가능한 실재에 대한 유추를 통하여 대상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추 대 경험의 대립관계 설정은 문제가 있다. 유추와 경험이 구분되는 두 개의 인식 양상이 아니라 유추 과정의 구조 속에 경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재론자들은 유추의 과정은 경험적 과정과 구분되는 독특한 인식양태라고 간주하지만, 사실 유추의 기본이 되는 인식은 이성적 추론과 기존의 경험으로 구성될 것이다. 관측불가능한 실재의 속성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측 가능한 것으로부터 파생된 경험적 논리와 인간이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과연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경험론자들은 기존의 경험적 대상들 간의 인과적 관계는 물론, 선형적이라고 생각된 이성까지도 경험적 관념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본다. 흄의 경우 대상들 간의 필연적 인과성을 상정할 수 없다는 회의적 견해를 표방하고 있고, 제임스(William James 1968)의 경우 칸트(Immanuel Kant)가 논한 선형적 도식까지도 경험에 의해 관념 속으로 표상되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인된 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실재론자들이 유추를

사용하여 존재의 원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할 때, 경험론자의 관점에서 이를 반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유추의 과정 역시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제 자체의 존재를 몸에 의한, 지각적 경험으로 상정하기만 하면 유추에 의해 속성을 파악해 가는 과정이 경험론과 배치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근본적 경험론의 입장에서 과학적 실재론의 유추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실재론자들은 관측 불가능한 대상과 유추된 속성 간의 필연적 연결성을 계속 고집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유추의 과정은 인과적 인식이 필연적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추가 인간 경험에 근거한 논리구조라고 할 때 대상의 본질과 속성들 간의 선형적 필연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성의 선형성을 인정하더라도 대상이 가지는 물리적 속성이 인간의 이성과 부합하여 온전히 파악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가 존재할 수 있다. 결국 다양한 실재론적 언명들 간의 비교를 통해 보다 “성숙한” 이론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진리근접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역시 대상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지식의 유용성, 혹은 논리적 정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관측되지 않은 실재에 대한 자체적 진리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유추의 방법은 경험과 논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추의 방법을 상정하여 대립구도를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실재론과 경험론 모두 인간의 인식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논점을 잘못 상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식작용은 몸을 기초로 주어진 소여를 감각기관에 의해 인식하고 이를 이성에 의해 재조직하는데, 이때 이성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경험에서 비롯된 능력으로 볼 수도 있다. 이성의 선형성과 경험성 논쟁과 상관없이 대상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회의할 수 없게 되고,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노력 역시 유추이건 혹은 관념의 조합이건 대상의 존재성이 해결된 이상 새로운 논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3) 웬트는 성숙한 설명의 논리적 성공과 구별되는 조작적 성공을 하나의 기준으로 소개하고, 조작적 성공에 기초한 진리론은 사실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과학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한, 조작을 진리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기 때문이다. 웬트(1999, 64-67) 참조.

III. 사회적 대상과 과학적 실재론, 구성주의, 해석학

1. 사회적 대상에 대한 과학적 실재론의 견해와 구성주의

과학적 실재론이 주로 자연과학의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에 대한 논점을 부각시킨 것이 라면 국제정치학 이론 수립의 관점에서 실재론이 사회적 대상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약 사회적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자와 별개로 사회적 현실이 존재한다면 객관적 사회과학은 성립 가능하다. 여기서 사회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과는 달리 시공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므로 초역사적 일반화나 법칙의 발견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실천에 따라 사회적 실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실천으로 환원되는 가변적 실재성을 띠며, 인간의 실천이 관념에 기초하는 한 실재의 범주에 관념을 어떻게 위치 지우는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실재론자들은 관념을 물리적 실재와 구분해서 인식하므로 관념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해 어려운 논의를 해야 하는 처지이다(Bhaskar 1975; 1979).

과학적 실재론의 사회적 적용을 지지하는 웬트(1999, 71-77)의 해결책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역사적 법칙을 발견해야만 대상의 실재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공에 의하여 제한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국한된 대상의 실재성과 속성에 관한 유추가 가능하다면 과학적 인식일 수 있다는 점으로 수궁할 수 있는 논리이다. 둘째, 사회구조의 상당 부분은 인간의 존재 조건의 중요한 부분인 물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인간의 존재 기반이 상당부분 물적 기반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국제정치학의 경우 몸에 대한 폭력이 국제정치구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기반에 기초한 대상의 실재성과 속성을 가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비록 변화하는 관념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라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되면 “물화(reification)”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준실재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물리적 대상처럼 완전히 실재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는 없지만 관념에 기원한 사회적 행동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하나의 패턴으로 고정된다면 물적 구조에 준하는 대상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웬트는 국제정치학의 기초 단위를 국가로 상정함으로써 국가의 내적 구조가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적 대상이 실재성을 획득하는 것은 인식자의 인식작용에 의한 구성이 아니라 대상 자체의 내적 구조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에서도 대상의 기초가 되는 단위가 인식자의 인식 작용이 아닌 내적 구조의 자기조직화에 의한 것이라면 대상의 실재성을 논하기가 비교적 용이해진다. 웬트는 자신의 구성주의를 국가중심주의라고 전제함으로써 구성주의의 실재론적 기반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2. 구성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러한 논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실재론의 문제점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상의 실재성을 판단하는 데 인식자의 관념을 중시함으로써 관념 이전에 발생하고 있는 지각의 인식작용 단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리적 대상에 관해서도 인식자의 몸을 매개로 한 지각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고 사후적으로 관념적 인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회적 대상에 대한 인식 역시 몸을 매개로 한 생활세계적 지각이 선행하기 때문에 대상의 실재성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사회적 사실을 인식자가 어떻게 처음 체험하게 되는가, 이후에 이를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실재성과 속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각의 최초 단계에서 존재론이 선행하는가, 인식론이 선행하는가는 큰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지각 이후 이를 반추하는 자기 반성 이전의 단계에서 지각은 몸을 매개로 주객혼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대상, 또는 타인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상대방의 물리적 차원을 지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의미에 대한 이입적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 인간적 대상은 스스로가 세상을 해석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인식은 해석하는 대상을 해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웬트의 경우 대상을 집합적 행위자(*corporate agent*)인 국가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이론화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단순화를 위한 장치이며 국제정치 현실에서 개인을 배제할 수 있는 선험적 근거는 없다. 해석적 인식 과정에 대한 이론화는 국제정치를 이론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사회적 실재론은 관측 불가능한 관념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은 관념이 실재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으로 물질은 존재하고 관념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 존재하지 않는 관념이 존재하는 인간의 물적 기반을 움직여 행동으로 귀결시킬 수는 없다. 사회적 실재론의 대상으로 관념을 설정할 경우 관측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관념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탐

구하며 되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존재하는 관념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자연과학적 유추가 아닌 보다 폭넓은 해석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마치 물리적 대상 이면서 관측 불가능한 대상을 유추의 방법으로 인식하듯이 사회적 사실에서 관념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다. 흔히 이해사회학 혹은 해석학에서 인식자의 지평의 문제를 들어 인식의 객관성이 논란이 된다. 과학적 실재론자들은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추구하지만, 타자의 관념에 대한 인식 역시 지평의 확대 및 일치를 통해 좀 더 완전한 인식에 접근할 수 있다. 웬트의 논의에서 보다 성숙한 과학적 실재론적 설명을 추구하듯이 지평의 확대와 심화에 의해 좀 더 성숙한 해석적 인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사실을 인식하는 인식자의 지평이 중요한 해석의 조건이 되는 경우, 인식론이 존재론을 구성하는 부분을 도외시킬 수 없다. 그렇다고 실재론이 논하는 바 사회적 대상의 실재성과 본래적 속성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 대상은 그 자체로 물리적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관념이라는 존재와 함께 섞여 실재하는 것이고, 개별 존재를 내적으로 구성하는 물질, 관념적 논리가 존재하면서 속성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상의 관념성은 그 대상 스스로가 세계를 해석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자의 지평이 인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인식자는 자신의 경험세계에서 이입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인식하는 것이고, 실재에 부합되는 면에 한해서 성숙한 인식으로 인정받고, 또한 사회적 사실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웬트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 실재론을 공고히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음의 논의를 보면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실재론에 의하면 사회과학은 사회적 대상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다. 실재론이라고 해서 사회과학의 독특한 특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론적으로 대상은 인식행위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는 없다. 인식론적으로 사회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은 기술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자기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복구도 사회행동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재론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자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실재 자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Wendt 1999, 77).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재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설명 과정에서 인식자의 지평이 작용하고 지평 융합의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식대상 스스로가 인식하는 주체이자,

변화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미의 객관적 파악이란 불가능하다. 결국 단순한 의미의 인식론 우선성과 존재론 우선성의 논쟁은 사회적 대상의 인식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실재론을 고집할 수도 없다.

결국 자연적 대상을 문제로 삼고 벌였던 과학적 실재론과 경험론의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사회적 대상을 문제로 삼는 실재론과 경험론의 논쟁의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인식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지평을 얼마나 넓히는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좋은 주관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하여 상호주관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얼마만큼 성찰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자기해석과 세계해석 과정의 가변성을 얼마나 추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IV. 현상학을 통한 이론의 성찰성 추구

1.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적 성찰성

실증주의는 관찰가능한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과학적 이론의 핵심이라고 상정한다(Lapid 1989). 실증주의자라고 해서 사회적 대상이 관념과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식론과 방법론이 부재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동으로 구체화된 대상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실증주의는 주객의 분리를 상정하고 있는데, 인식행위가 이론 혹은 관점으로부터 객관적인지에 대해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과학철학 내부에서 패러다임론, 연구프로그램론, 상대주의론 등은 물론이고, 사회적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인식자의 지평,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지식사회학적 한계 등이 지적되어 왔다(Jackson 2011).

결국 주객분리의 가정과 경험적 인식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 성찰적 자기인식 속에서 인식자의 인식행위를 반성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대상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인식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Eagleton-Pierce 2011). 잭슨(Patrick Thaddeus Jackson 2011)의 경우 성찰적 이론은 존재론적으로 주객의 일원론과 관측불가능한 대상의 실재성을 인식하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류법으로 성찰적 이론은 사회적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식론, 존

쟁론 우선성 논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성찰적 이론은 경험적으로 적극적인 이론을 구성하지 못한 채, 인식자의 인식 지평의 문제만을 반성적으로 다루어왔다. 인식자의 사회적, 이념적, 지식사회학적 관점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프랑크푸르트학과, 비판이론, 성찰적 구성주의(Onuf 1989) 등이 그러한 공헌을 한 이론이다.

그러나 성찰적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정치 현실을 적극적으로 이론화할 것인가의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리적 대상과 관념적 대상의 관계 설정,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지각 과정 정립, 사회적 대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 과정 정립, 인과적 설명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정립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성찰적 이론가는 대상이 인식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및 내재적이며 자기조직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론적 사실, 자신의 인식 행위가 반성되기 이전에 이미 순수한 지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식행위는 필연적으로 지각의 구조, 관념적 인식의 구조, 그리고 이미지, 상징, 언어 등 매체의 구조에 따라 구성 행위를 수반한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자신의 인식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성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은 성찰적 인식의 모델을 후설의 현상학에서 찾는다. 현상학은 데카르트 이래 명증한 인식의 정초를 찾으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상을 인식할 때 현상의 본질에 대해 어떠한 기본 가정도 거부하고 자신의 인식체험이 대상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서 출발하여 여타의 선입견을 거부하고 인식의 구조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기존의 모든 철학적 견해를 방법론적으로 “괄호치고” 인식의 근원이 되는 순수의식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현상학은 방법론적 괄호치기라는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우선 수행하여, 대상의 본질을 직관하는 데에 힘쓴다.

따라서 현상학은 “순수 또는 선형적 현상학으로서 사실과학으로서가 아니라 본질학문으로서(‘형상적’ 학문으로서) 정초될 것이다. 즉, 결코 ‘사실’이 아니라 오직 ‘본질인식’을 밝혀내려는 학문으로서 정초될 것”이라고 후설(2012, 51)은 밝히고 있다. 경험과학들이 ‘사실’ 과학들이 반면, 현상학은 본질을 직관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본질’은 어떤 개체의 그 자체의 고유한 존재 속에 자신의 그것으로서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Husserl 2012, 61).

이 경우 성찰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상 그 자체 혹은 사태(Sache)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태 자체에 관해 이성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태 자체에 따르는 것, 또는 논의와 사념에서 사태 자체로 되돌아가는 것, 사태 자체를 이것이 스스로 주어짐 속에 심문하고 사태에 생소한 모든 편견을 무시하는 것을 뜻한다”(Husserl 2012, 95).

결국 현상학이 추구하는 인식의 조건은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데, “진정한 학문과 이 학문에 고유한 진정한 편견없음은 그 타당성을 원본적으로 부여하는 직관들로부터 직접 끌어내는 직접적으로 타당한 판단들 자체를 모두 증명의 토대로서 요구한다”(Husserl 2012, 96).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현상학과 경험론, 현상학과 실증주의에 대한 후설의 견해인데, 경험론에 대해서 후설(2012, 99-100)은 “경험론자들이 진정한 관점에 입각한 철학자들로서 또 편견에서 자유롭다는 자신들의 원리와 명백한 모순 속에 해명되지도 정초되지도 않은 사념들로부터 출발한 반면, 우리는 모든 관점에 앞서 놓여있는 것으로부터, 즉 직관적으로 게다가 모든 이론화하는 사유작용에 앞서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의 전체 범위로부터, 우리가...직접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점을 취한다”고 본다. 실증주의에 대해서도 후설은 “만약 실증주의(Positivismus)가 모든 학문을 절대적으로 편견에서 해방되어 ‘실증적인 것’, 즉 원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에 근거지움과 같은 것을 뜻한다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실증주의자들”이라고 논하는 한편 “‘실증주의자’들은 때로는 직관의 본성들의 주요한 차이들을 혼동하고, 때로는 이 차이들을 대조시켜 보지만, 자신들의 편견에 얽매어 이 직관들 가운데 오직 하나만을 타당한 것으로 또는 심지어 현존하는 것으로 인정하려고 의도하는 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경험론과 실증주의 모두가 경험에 대한 정의를 협소하게 하고, 무전제의 현상 인식에 대해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현상학적 성찰성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판단 중지에도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자연적 세계에 관련된 모든 학문을 배제하고 [...] 학문들에 속한 명제들의 어느 하나도, 비록 그것들이 완전한 명증성이 있더라도, 내것으로 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토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판단 중지는 실증주의적 판단중지와는 다른 것으로서 “실증주의적 판단중지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정초가 직접 발견되는 형이상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문 정립을 의미한다고 할 때, 현상학적 판단중지는 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자체를 괄호치며, 전체의 세계 자체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이다(Husserl 2012, 125).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후설이 대상의 실재성 자체도 판단중지한다는 점이다. 보통 후설에 대한 연구는 초기 후설과 후기 후설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 논점인데, 초기의 후설이 대상의 실재성 자체에 대해 순수의식에 근거하여 판단중지하는 데 반해, 후기 후설은 발생론적 현상학에 근거하여 인식이 생활세계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견해는 후기 후설, 그리고 뒤에 설명할 슈츠의 경우에 존재론적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된다. 이는 순수의식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지각과 몸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자를 새롭게 상정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으로, 특히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지각현상학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후설(2012, 118)에 의하면 생활세계에서 인간은 “동료인간과 의사소통하며…환경세계로서 객관적으로 공간-시간적인 어떤 실제성을 공통적으로 정립한다”. “세계는 언제나 나에게 대해 ‘현존하고,’ 나 자신은 세계의 구성원이다. 더구나 이 세계는 나에게 대해 단순한 사태세계(Sachenwelt)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직접성에서 가치세계, 재화세계, 실천적 세계로서 거기에 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물들을 즉시 사태의 성질들 뿐 아니라, 아름답거나 추한,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기분이 좋거나 나쁜 등 가치특성을 지닌 것으로 발견한다”는 점에서 삶과 인식의 맥락이 대상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인식의 토대가 된다(Husserl 2012, 115).

2. 슈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통한 성찰적, 경험적 이론의 정립 가능성

후설의 견해는 성찰성의 인식근거에 대한 많은 통찰을 주지만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통찰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슈츠이다.⁴⁾ 슈츠는 후설에게서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성찰적 방법론을 받아들여 활용하면서, 베버의 이해사회학의 논점들을 후설과 연결하여 사회를 보는 독특한 관점을 창출해 냈다. 슈츠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사실을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이 생활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참모습이라고 간주한다. 인간은 자신이 구성하거나 창조하지 않은 세계 속에 던져져 선조들과 동시대인, 후세대 사이에 끼어 존재하게 된다(Schutz 1970, 231-235). 슈츠에게 세계의 선행적 존재성 자체 및 속성, 더 나아가 세계의 체제적, 구조적 속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활세계에서 인간들은 삶을 영위하는 실체로서, 타인들과 대면접촉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Schutz 1970, 72-76). 슈츠(1970, 31)는 “우리-관계”(we-rela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간의 인식의 토대가 신체성(corporeality)를 매개로 타인과 몸과 몸으로 접촉하는 상황적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몸짓, 감정, 의미 등을 공유하면서 세계를 해석하는 공동의 준거틀을 만들어가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4) 후설의 현상학을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에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민속방법론과의 연결성을 찾는 최근의 연구로 이남인(2014) 참조.

인간은 인식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살아가는 존재이자, 맥락적 존재로서 생활세계를 반영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은 세상에 대처하는 준거틀, 대응책(recipe), 의미체계 등의 개념으로 분석되고, 세상을 전형화(typification)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으로 나타난다(Schutz 1970, 27). 생활세계를 살아가면서 인간은 다수의 대응책을 받아들이는데, 이들 대응책들은 논리적으로, 혹은 실용적으로 상호 모순되고 충돌적이지만 인간은 이를 아무런 갈등 없이 함께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Schutz 1970, 80-82). 따라서 인간의 삶은 하나의 생활세계가 아닌 다수의 현실(multiple realities)로 구성되는데, 이는 제임스가 논하는 “한정된 의미체계” 혹은 “소우주”와 통하는 개념이다. 인간은 종교적 의미체계, 학문적 의미체계, 더 나아가 상상된 의미체계를 동시에 살면서 서로 모순된 논리를 동시에 겪어나가고, 하나의 의미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이동할 때, “도약”과 “충격”을 겪는데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의 인간은 후설이 논하는 바, 순수한 현상학적 환원, 판단중지를 수행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삶 속에서의 생활세계는 다른 다양한 의미체계의 기반이 되는 현실(paramount reality)이며 이는 다른 의미체계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한다(Schutz 1970, 245-262).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은 자신만의 의미체계에 근거하게 된다. 슈츠(1970, 65-71)는 인간의 행동을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행동(conduct),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동(action),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이고 작위적인 행동(working)으로 나눈다. 슈츠는 인간의 삶의 인식이 베르그송의 논의에 따라 독특한 삶의 흐름을 가지고 내적 시간(inner time)에 따라 움직이며 이는 객관적이고 우주적 시간과는 다른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 역시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주관적 동기와 의미에 따른 행동의 부분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동인에 의한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인간 행동의 인과론에 관련한 흥미로운 논의인데, 앞서 논한 흄의 관점에서의 실증주의적 인과론과 웬트가 논하는 바 구성적 인과론의 논의를 볼 수 있다(Kurki 2008; Lebow 2010). 슈츠는 인간의 동기를 “무엇을 하기 위한 동기”(in order to motive)와 “무엇 때문에 하게 되는 동기”(because of motive)로 나눈다. 전자는 행위자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해야만 설명 가능한 동기이고, 후자는 행위자가 처한 객관적 현실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동기이다. 결국 행위자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관찰 및 분석, 그리고 의미에 대한 이입과 해석, 이해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슈츠는 베버(Max Weber)를 따라 설명적 방법과 이해의 방법이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설명

적 이해, 혹은 설명을 통한 이해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민병원 2012). 그동안 국제정치학 이론 논쟁에서 설명과 이해를 양분해서 파악하는 논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Hollis and Smith 1991).

생활세계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인간사회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인식론에 근거해야 할까? 슈츠(1970, 239-242)는 인간의 자기이해의 방법을 세 부류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인간은 생활세계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관점에 따라 인간을 관찰하고 이론화하는 “전문가”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정반대의 관점에서 있는 것은 “생활인”(man on the street)이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의 실재성과 속성에 대해 판단중지하고 “자연적 태도”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형이다. 그 가운데에 속한 이들이 “양식 있는 시민”(well-informed)으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연적 태도에 대한 기초적 반성을 바탕으로 합당한 추론을 이끌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지식으로 이는 사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생산하며 인간의 인식과 삶이 자연적 태도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슈츠가 제안하는 과학적 지식은 베버의 이념형을 차용한 것으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동기, 과정, 결과물을 설명과 이해의 방법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인식 대상이 스스로에게 구성하는 동기로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식 대상에 대한 자서전적 지식, 사회적 맥락을 설명한 후 지평적 융합을 통해 이해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지평이란 “일정한 지각 대상에 대해 가능성 있게 열려 있는 부분들의 전체”로서, “다른 대상들과의 관련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하나의 대상 내에서 가능성 있게 열려 있는 지평을 내적 지평이라 하고, 주변의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 가능성 있게 열려 있는 지평을 외적 지평”이라 할 수 있다(조광제 2008, 217). 슈츠(1970, 265-284)는 지평적 이해를 통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념형적 지식을 구성한다. 합리적 행동에 대한 이념형 뿐 아니라, 비합리적 행동에 대한 합리적 이념형을 구성하여 설명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학의 기준은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내적으로 합당한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것인바, 인간의 생활세계적 속성을 명확히 파악한다면 비합리적 행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합리적 행동과 비합리적 행동의 구분조차 생활세계 개념에 근거하면 인위적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슈츠는 후쉴이 제안하고 있는 인식자의 성찰성을 바탕으로 존재론적 선입견 없이 사회적 사실을 경험적으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세계의 실재성과 자체적 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존재론 우선성과 인식론 우

선성의 문제는 진정한 문제로 대두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의 인간이 삶의 주체로서 생활 세계 속에서 지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구성하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각과 관념, 언어를 포함한 매체의 구조는 세상에 대한 인식적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주관적 이해가 합쳐질 때, 사회적 대상에 대한 성찰적이면서도 경험적 이론화의 단초가 제공된다.

V. 결론에 대신하여: 성찰적 국제정치학 이론의 구성요소

후설과 슈츠는 현상학적 환원과 생활세계론을 토대로 국제정치 이론의 존재론과 인식론 논쟁을 극복하고 성찰적이면서 경험적인 이론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정치학 이론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는 명제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대상의 실재성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인식론 우선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관념에 의한 인식 이전에 몸을 가진 인간의 지각과정을 유념함으로써 실재론 논쟁을 벗어날 수 있다.
- 2) 대상의 물적 속성과 관념적 속성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양자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설명 방식을 찾는 한편, 물적 속성과 관념적 속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전체를 구성하는가를 설명한다.⁵⁾
- 3) 관념을 가진 인간, 그리고 인간집단을 인식 대상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인식론이 불가피하며, 스스로 해석하는 인간의 구체적 삶의 양식, 즉, 생활세계의 구조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 4) 해석과 이해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언어의 문제로 집중되는데, 사회적 대상인 인간들이 언어에 의해 세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간 대상을 또다시 언어에 의해 이론화하는 이중 언어작업이 언어 자체의 논리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이를 연구의제로 삼되, 언어적 인식이 대상의 실재성과 속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5) 이점에 관해서는 특히 노양진(2000; 2013)의 체험주의적 시각을 참조. 체험주의 시각은 우리 경험의 물리적, 신체적 차원과 정신적, 추상적 차원을 구별하고, 이 두 차원의 연속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전재성(2014)도 참조.

유념해야 한다.

- 5) 물질 구조 및 반복된 인간의 실천에 의해 사회구조가 발생하고 물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 역시 인간의 실천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개별 대상 상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구조의 구성적 인과관계 역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이론의 바탕이 되는 메타이론적 요소들을 조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경험적인 이론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메타이론의 요구와 일치하면서 국제정치라는 특수한 대상에 맞는 개념, 가설, 방법론,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앞서 논의한 성찰적 메타이론의 요소들을 가지고 다음의 점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인식론 우선론을 앞세워 국제정치 현상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국제정치의 존재론적 실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제정치는 다른 사회영역과 달리 폭력이 중요한 매개가 되는 영역이다. 폭력의 영역은 인간 신체성의 영역으로 폭력에 대한 몸의 지각에 근거하기 때문에 관념에 기반한 인식론으로 실재를 부정하기 어렵다. 탈근대 이론가들의 주장처럼 폭력에 대한 언어적 표상이 폭력의 본질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폭력의 존재 자체를 지각하는 인식 단계를 우회할 수는 없다. 폭력과 더불어 경제적 삶 역시 마찬가지로 지이다. 생산수단과 착취 과정에 기반한 국제정치경제 이론들의 기본 지각 역시 인식론 우선론을 따르기는 어렵다.

둘째, 국제정치 대상의 물질 속성과 관념적 속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정치 대상의 실재성 자체는 의심하기 어렵지만 물리적 대상에 부여된 의미는 관념의 개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구성적이고 때로는 제약적인 관념 요소들은 폭력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행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구성주의자들이 논하는 폭력에 부과된 의미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의미의 파악과정에 선형적으로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증주의 계열 이론들이 논하는 바처럼 국제정치에서 폭력의 생산과 배분, 사용과정을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폭력의 의미를 다루면서 인식론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상학적 성찰성을 가지고 보면, 국제정치의 기본이 되는 개인은 국제정치적 생활세계에서 처음으로 폭력 요소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집단적 기억으로 때로는 개인적 기억으로, 때로는 현현하는 폭력의 체험으로 폭력의 생활세계를 경험하며 맥락 속에서 폭력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폭력을 정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국가기구를 이론적으로 경험하거나, 무정부상태에서 미분화된 기능들 간에 불균

등하게 배분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제정치의 관념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매개의 구조, 특히 언어적 표상의 구조에 의해 구성되고 조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 세계의 실재성은 인정하더라도 실제의 속성에 관해서는 언어 논리가 적용된다. 이는 구조주의 계열의 학자들과 탈근대 이론가들의 논의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국제정치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간의 언어구조 혹은 의식과 사고구조의 영향을 받아 국제정치 세계를 표상하게 된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제정치 구조를 상정할 때, 구조의 실재성은 공히 인정하더라도 구조의 속성은 그리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국제정치 구조는 개별적인 사건사, 혹은 생활세계 속에서 표상되고 작동하기 때문에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노명우 2008; Koselleck 2007). 실재론자들은 최상로의 추리과정을 상정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구조를 표상하는 언어 역시 언어 자체의 논리에 영향 받기 때문이다. 리피르(Paul Ricoeur 2001)의 논의처럼 언어는 다의성을 띤 은유적 형식이고, 구조를 표상하는 학문적 용어 역시 이러한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국제정치학에서 사용하는 구조라는 용어가 다른 사회과학 분과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구조 개념에서 차용한 만큼, 용어 자체가 현실을 표상하는 다의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정치 구조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재하는가는 언어 자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국제정치이론에서 구조라고 부르는 대상 역시 인간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실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천 행위인데, 슈츠의 개념대로 하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유의미한 행위이며, 구체적이고 작위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구조를 이루는 행위의 의미기반을 인식하지 않으면 구조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해석학적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구조를 외생적인 실체로 상정할 수 없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가정은 실천적 성찰성을 높이는 데 이론적 기여를 한다. 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상정하는 실증주의 이론의 경우 행위의 의미를 탐색하지 못함으로써 구조의 변동이라는 설명적 측면과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비판적, 해방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투고일 2014년 4월 20일

심사일 2014년 5월 9일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29일

참고문헌

- 노명우. 2008. “에쓰노그라피와 문화연구방법론” 『담론 201』 11집 3호, 61-86.
- 노양진. 2000. “실재론과 반실재론을 넘어서.” 『철학적 분석』 1권, 78-97.
- _____. 2013. 『몸이 철학을 말하다: 인지적 전환과 체험주의의 물음』. 서울: 서광사.
- 민병원. 2012. “이해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한국정치연구』 21권 3호, 343-367.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서울: 한길사.
- 이명현. 2003. “실재론 - 반실재론 논쟁의 함정.” 『철학사상』 16권 3호, 13-28.
- 전재성. 2014.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 인식론의 모색.” 『세계정치』 20집 봄/여름호, 69-110.
- 조광제. 2008. 『의식의 85가지 얼굴: 후설 현상학의 주요 개념들』. 서울: 글항아리.
- 채오병. 2007. “실증주의에서 실재론으로: 역사연구 논리의 전환.” 『한국사학회』 41집 5호, 249-283
- Bhaskar, Roy. 1975.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eeds: Leeds Books Ltd.
- _____. 1979.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A Philosophical Critique of the Contemporary Human Sciences*. New Jersey: Humanities Press.
- Der Derian, James and Michael J. Shapiro, eds. 1989. *International/Intertextual Relations: Postmodern Readings of World Politics*. Lexingto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 Eagleton-Pierce, Matthew. 2011. “Advancing a Reflexive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39, No.3, 805-823.
- Fogelin, Robert J. 1985. *Hume's Skepticism in the Treatise of Human Na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empel, Carl G. 1942. “The Function of General Laws of Hist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39, No.2, 35-48.
- _____.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C. G. Hempel, ed.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and other Essay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 Holis, Martin and Steve Smith. 1991.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me, David. 1975.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Clarendon Press.
- Husserl, Edmund 저. 이종훈 역. 2012.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I』. 서울: 한길사.

- Inanna Hamati-Ataya. 2013. "Reflectivity, Reflexivity, Reflexivism: IR's 'Reflexive Turn' — and beyon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 No.4, 669-694.
- Jackson, Patrick Thaddeus. 2011.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James, William. 1968. *The Writings of Wiliam James*. New York. Modern Library. 1968.
- Koselleck, Reinhart 저. 한철 역. 2007. 『지나간 미래』. 서울: 문학동네.
- Kurki, Milja. 2008. *Caus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laiming Caus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Lapid, Yosef. 1989.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235-54.
- Lebow, Richard Ned. 2010. "Constitutive Causality: Imagined Spaces and Political Practice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8. No.2, 1-29.
- Livingston, Donald W. 1984. *Hume's Philosophy of Common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nuf, Nicholas Greenwood. 1989.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Popkin, Richard Henry. 1951. *David Hume: His Pyrrhonism and his Critique of Pyrrhonism*. *Philosophical Quarterly* 1, 385-407.
- Ricoeur, Paul 저. 양명수 역. 2001. 『해석의 갈등』. 서울: 아카넷.
- Schutz, Alfred. 1970. *On Phenomenology and Social Relations: Selected Writ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ker, R. B. J. 1992. *Inside/Outside: International Relations as Political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ight, John P. 1983. *The Sceptical Realism of David Hume*.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BSTRACT

Meta-theoretical Deb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Prospect for Reflective Theory

Chaesung Chun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an important debate regarding the priority of two meta-theoretical elements: ontology and epistemology. Constructivists such as Alexander Wendt, based on major arguments of the scientific realism,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important elements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nd state remain beyond controversy. Empiricism and post-modernism posit that representations and linguistic structures construct and frame the reality, thereby negating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mat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the importance of embodied cognition, and phenomenology of philosopher and sociologist such as Edmund Husserl and Alfred Schutz,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ebate dividing the ontology and epistemology is wrong-headed. Also it argues that we need to enhance theorists' reflectivity and also the ability to build empirical theories which can evade the pitfalls of positivis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Keywor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ntology, epistemology, reflectivity, constructivism, scientific realism, positivism, empiricism, post-modernism